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경건 훈련

[딤펴 4:6]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믿음과 좋은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리라).

디모데가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는 교훈이 귀신의 교훈이라는 분별력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지식을 가지고 한다면, 믿음과 좋은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성경은 믿음과 좋은 교훈의 말씀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성경말씀으로 양육받는 몇 년의 혹은 긴 세월들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 것이다.

[7절] 망령되고(베벨로스 βεβηλος)(속되고, 세상적이고 허탄한(그라오데스 γραώδης)(나이 많은 여자들이 말하느니라)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κνναζε) 훈련하라.

‘신화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이다. 기독교는 사실들에 근거하고 있다. 성경 사건들은 신화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속되고 어리석은 신화적 이야기들은, 비록 그것이 육신의 재미와 즐거움을 일으키는 것일지라도, 다 버려야 한다. 그것들은 참된 믿음에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대신,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한다. ‘경건’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믿고 그를 섬기는 것이다. 경건은 곧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우리는 경건 훈련이 필요하다. 경건은 훈련이 필요하다. 경건생활은 성도에게 당연한 생활이며 또 진실한 성도라면 다 그렇게 알고 있겠지만,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성도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없다.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경건의 훈련을 힘쓰지 않으면 세상 사람처럼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성경 읽기, 기도 생활, 가정예배,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 십일조 생활, 수요일 밤과 금요일 밤 예배나 새벽예배에 참석하는 것, 권찰이나 교사나 찬양대 봉사하기, 전도하기 등은 다 훈련을 통해 더 잘하게 되는 것이다.

[8절] 육체의 연습(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유익하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빨리 걷거나 달리거나 등산 등을 한다. 몸의 훈련은 유익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의 삶에 국한되고 이 세상의 평안한 생활도 보장하지 못한다. 건강 관리를 잘하던 사람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무서운 질병에 침입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한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금생의 약속’은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물질적 안정, 사회적 평안 등을 가리킨다. 신명기 28:1-6,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시편 1:1-3,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19:1, 16,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잠언 3:1-2, 7-10,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건강, 치료)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마태복음 6:33, “너희는 먼저 그의[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의 식주]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생의 약속’은 영생 복락을 가리킨다.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쓰면 미래의 구원은 확실해진다. 고린도전서 15:1-2,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갈라디아서 6:7-8,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베드로전서 1:8-9,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 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후서 1:10-11,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9절]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은 신실하며, 모든 사람들이[전적으로] 받을 만하다.

경건이 중요하고 복되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말은 신실하고 전적으로 받을 만하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것이 영생이요 행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근본적 진리를 의심치 말고 더디 믿지 말고 전적으로 받아서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 경건 훈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훈련이다.

[10절] [이러]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盡力) 하느[모욕을 당하]는(전통본문)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이키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를 위하여’는 ‘경건을 위하여’라는 뜻이다.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믿고 그를 섬기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모욕도 당하였다. 그것은 그와 그의 일행들이 그들의 소망을 돈이나 육신의 쾌락 같은 세상의 것에 두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

의 구주”이다. 그는 오늘 우리도 구원하셨고 양육하고 계신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경건 훈련을 힘써야 한다. 경건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새벽에든지 밤중에든지 성경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둘째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몸의 훈련도 약간 유익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그리고 현세와 내세에 유익하다.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현세에서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과 물질적 여유를 주고 내세에서 확실히 영생을 보장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돈이나 육신의 쾌락 같은 이 세상의 것들에 두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구주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 세속적인 것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은 일시적이며 우리가 죽을 때 허무해지고 또 생전에도 재앙의 날에 허무해진다.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주일오후설교

절기에 대한 법

[출 23:10-11]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어[묵혀] 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것은 땅의 안식년에 대한 법이다. 논이나 밭, 포도원이나 감람원은 6년 동안 파종하고 제7년에는 묵혀 두어야 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이 먹도록 배려하신 법이기도 했다. 또 그것은 땅의 생산력을 높이는 데도 유익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본받아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들짐승들에게도 그러해야 한다.

[12절] 너는 6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쉬 것이며 네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가축들과 종들도 배려하신 계명이다. 집에서 일하는 소와 나귀도 안식일에 쉬 것이며 여종의 자녀들과 나그네들도 숨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들과 종들과 집에 거하는 나그네들을 배려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우신 분이시다. 그는 피조물들의 수고로움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13절]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하나님의 법은 일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겨야 한다. 모든 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그가 주신 법을 지키는 것이다. 온 우주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리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우리의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지니라.

모세의 율법은 열 가지 절기들을 규정한다. 안식일, 월삭, 유월절-무교절, 보리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안식년, 희년 등 열 가지이다. 그 중 연중 절기가 여섯이고, 또 그 여섯 중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그 셋은 다음에 명령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다.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빔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연중 3대 절기 중, 첫 번째는 무교절이다. 무교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아빔월(출 13:4; 23:15; 34:18; 신 16:1) 즉 1월에 지키는 절기이다. 1월 14일 저녁은 유월절이며, 1월 15일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이다(레 23:5-6). 그것은 양력으로 3월 중순쯤 된다.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 없이 만든 떡을 먹기 때문에 무교병[누룩 없이 만든 떡]의 절기 혹은 무교절이라고 불린다. 무교절의 첫날인 1월 15일과 제7일인 1월 21일은 안식일이며 성회(聖會)로 모였다(레 23:7-8). 유월절과 무교절은 시간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 신약시대에는 더욱 그러하였다(마 26:17; 막 14:1, 12; 눅 22:1, 7).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때 흠 없고 1년된 숫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틀 위와 좌우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다. 무교병은 옛날에 애굽에서 급하게 나온 사실과 흠 없는 제물을 상징했다.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고통스런 생활을 상징했다. 어린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고린도전서 5:7,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어린양의 피를 집 문틀 위와 좌우에 발라 하나님의 재앙을 피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연중 3대 절기 때에는 하나님께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정성의 예물을 드려야 했다. 신명기 16:16-17도, “공수(空手)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하였다.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연중 3대 절기 중, 두 번째는 맥추절이다. 맥추절은 ‘밀 초실절’(출 34:22)이라고도 불린다. 그것은 밀 추수를 시작할 때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다. 유대 땅에서 곡식 추수는 무교절 기간의 보리 추수로 시작하여 맥추절 기간의 밀 추수로 끝난다. 무교절의 7일 중에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보리 초실절’이다. 그 날은 보리 추수의 첫 단을 안식일 다음날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날이며(레 23:10-11), 전통적으로 1월 16일이다. 보리 초실절로부터 일곱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날이 맥추절이다. 그래서 맥추절을 ‘칠칠절’(신 16:16)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른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예표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양이라고 불리신다(고전 5:7). 무교절 기간에 있는 보리 초실절(1월 16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했다고 본다. 주께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전 15:20). 이것들과 비교하여, 맥추절은 성도들의 중생과 구원을 예표했다고 본다. 그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행 2:1-4) 신약교회의 구원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날 3천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행 2:41). 레위기 23:17에 보면, 맥추절에는 누룩을 넣어 구운 떡 두 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롬 8:23), 즉 구원은 얻었으나 아직 죄성이 남아 있는 자들을 상징했다고 본다. 또 떡 두 덩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상징한 것일 것이다.

연중 3대 절기 중, 세 번째는 수장절(收藏節)이다. 수장절은 연말에 밭에서 거둔 것들, 곡식들을 비롯하여 각종 열매들, 기름, 포도주 등을 저장하는 절기이다. 수장(收藏)이라는 말은 ‘거두어 저장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레 23:34; 신 16:13),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 거하였던 것을 기억케 하는 뜻이 있었다. 수장절 혹은 초막절은 연중 3대 절기 중 가장 기쁘고 즐거운 절기이다(레 23:39-40; 신 16:13-15). 이 세상은 광야와 같고 성도의 삶은 순례자의 생활과 같

다. 또 우리의 몸은 영구적 집이 아니고, 임시적 초막과 같다.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다. 우리의 본향은 장차 올 천국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1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집이 무너지면 . . .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말했다.

[17절]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앞에 다함께 모여야 했다. 구약시대의 절기들은 출애굽과 추수와 관계된 뜻이 있었고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했다. 또 절기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인다.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육의 공급하심을 항상 감사하며 힘써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것이다.

[18절]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지니라.

누룩 없는 떡은 죄 없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또 그것은 예배하는 자의 거룩한 마음이짐도 내포한다. 우리가 마음에 죄를 품고 회개치 않은 채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시편 66:18,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또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은 유월절 제물을 가리킨 것 같다. 유월절 어린양은 그 날 불에 구워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아야 했다(출 12:9-10). 출애굽기 34:25,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19절]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 가장 좋은 것(NASB)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민수기 18:12-13,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풍습이었다고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금하게 하신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짐승의 어미와 새끼 간에 세우신 관계를 멸시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일 것이다(카일-텔리취).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가난한 자나 들짐승이나 가축까지도 배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안식년과 안식일 계명도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들짐승이나 가축까지도 배려하는 뜻이 있었다. 우리는 남을 배려하는 자가 되고 특히 가난한 자와 짐승까지도 배려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결코 무심한 자나 잔인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 절기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뜻이 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며, 초막절은 광야 40년 생활을 상기시킨다. 연중 삼대절기는 그리스도의 구속(救贖)의 은혜와 추수감사의 뜻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 우리는 정성껏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우리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고(신 6:5) 처음 익은 열매를 그에게 드려야 한다(잠 3:9-10).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수요일 설교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

[사 38:1-22]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 . .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였다. 그의 질병은 그의 어떤 죄 때문에 온 것 같다.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청산하기를 결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눈물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죽을병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간 더 연장해주셨다. 사람의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다 작정하신 자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生死禍福)을 주장하시는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그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우리는 늘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게만 살아야 한다.

셋째로, 히스기야는 죽을병에서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후에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종신토록 신중하게 행하기를 결심했고(15-16절) 또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겠다고 말했다(20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종신토록 신중하게 행하며 항상 그에게 감사의 찬송을 올려야 한다. 죄와 미귀의 권세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찬송해야 한다.